



관악기를 연주하는 이태현군 가족.



외할아버지 전명선씨와 손자 나현호·건호군.



김은옥 작
'봄날에'

가족이 모이니 더 따뜻한 소리

역 앞에서 토요일그림경매

전남문화예술재단, 14일 광주역·28일 목포역

매주 진도에서 열렸던 전남문화예술재단의 토요일그림경매가 바깥 나들이에 나선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연말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에게 여행 남도를 알리기 위해 광주역 등지에서 특별그림경매를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광주역에서 14일 오후 4시, 목포역에서 28일 오후 4시에 각각 진행한다. 경매행사와 함께 국악공연도 곁들여진다.
또 오는 28일까지 광주역과 목포역 문화갤러리에서 '남도예술은행 순회그림경매전'도 함께 진행하며, 방문객에게는 남도예술은행 소장 작품으로 제작된 2015년 탁상용 달력도 준다.
이번 순회 그림경매전은 광주역과 목포역에서 각각 진행되며, 남도예술은행 소장작품 중 국전 등 각종 수상경력이 있는 유명작가들의 작품 50점(한국화 30점, 서양화 8점, 문인화 6점, 서예·서각 6점)을 만나볼 수 있다.
또 특별그림경매와 현장방문을 통해 작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최대 70% 할인된 금액으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61-280-58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올해 일흔 다섯인 서춘자 할머니는 오래 전부터 첼로 음색을 좋아했다. 기회가 닿으면 첼로를 꼭 한 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가족오케스트라 우리는 다 소리통'(이하 '다소리통')을 창단한다는 소식에 할머니는 반색했다. 문화센터에서 플루트를 배웠던 며느리 김혜선(37)씨와 손자 정민수(유안초 1년) 군에게 참여를 제안했다. 세 사람은 지난 6월부터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악기와 씨름했다. 이제 첫 연주회까지 앞두고 있어 설렌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악기를 이 나이에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것저거라도 훨씬 풍부해졌어요. 성취감도 있구요."(서춘자)
주부 김효진(37)씨는 '더드림 패밀리 오케스트라' 단원이다. 플루트를 연주하는 김씨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딸 임연경(블로초 6)양과 활동중이다. 지난해 입신 중 첼로를 연주했던 김씨는 아이를 낳고 플루트로 악기를 바꿨다. 엄마와 언니의 음악 소리를 들으며 태어난 아기는 요즘도 엄마 품에 안겨 연습장에 온다. 가족 오케스트라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부모와 자

할머니·손자·이모·조카...
가족 오케스트라 인기
三代가 함께 맹연습
靑공연예술위 '더 드림'
광주여성필 '다 소리통'
13일 연주회 개최

녀, 손자와 할아버지, 이모·삼촌과 조카 등 다양한 가족들이 음악으로 따뜻한 가족애를 전하고 있다.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더 드림'과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운영하는 '다 소리통'이 대표적이다. 두 단체 모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한 '꿈다락 토요 문화 학교'에 선정돼 오케스트라를 꾸렸다.
가족 오케스트라는 모집 단계에서부터 하루 만에 정원을 채우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지금도 대기자가 많다. 광주에 거주하는 초중고생과 부모(할머니·친척 포함)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악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개별 자금이 원칙이다.
'더 드림'은 지난해 8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첫째에는 25가족 56명이 활동했고 올해 단원은 31가족 90명에 달한다. 단원 중 70% 정도는 난생 처음 악기를 잡아보는 경우다.
최고령 단원인 전명선(70) 할아버지는 외손자 나현호(삼육초 4년)·건호(삼육초 3년) 형제와 함께 연주한다. 할아버지는 클라리넷을, 외손자들은 바이올린을 맡았다. 지난해까지 아이들과 함께 했던 엄마의 건강이 나빠져 할아버지가 뒤늦게 합류했고, 클라리넷의 매력에 푹 빠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는 13일 열리는 정기 연주회 때 첫 곡 '10월의 어느 멋진날'을 연주하는 태현이네 가족은 요즘 연습에 한창이다. 처음 가족오케스트라를 제안한 건 엄마 최희정(47)씨였다. 전남대 관악악반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큰 딸 지현(21·클라리넷)씨와 민정(20·호른)씨는 악기에 진숙했다. 막내 태현(만호초 6년)이는 피아노와 첼로를 배웠지만 이번에는 누나들의 권유로 트럼펫을 잡았다. 악기는 난생 처음인 최씨는 플루트를, 아빠 이명수(51)씨는 트럼본을 배웠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이런 저런 악기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하기도 했어요. 아이들 후원자만 하다 가족 오케스트라가 생긴다는 말 듣고 가족들이 함께하고 싶어 제가 다 물고 열근 달려갔죠. 애 아빠는 악보도 더듬더듬 보고 고생이 많았죠(웃음). 첫 곡 연주를 맡게 돼 딸 아이 동아리 방에 가서 함께 연습도 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어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죠. 나중에 우리 가족에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두 팀은 오는 13일 각각 공연을 갖는다. '더드림'은 오후 5시 광주 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연다. 레퍼토리는 영화 '여인의 향기'와 '목기' 주제곡을 비롯해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베히벤의 '아프리카 교향곡' 등이다. 화순 하리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극단 '하리'도 함께 호흡을 맞춘다. 피날레 곡은 두 단체가 함께하는 베히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이다.
같은 날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다소리통'의 공연에서는 헨델의 '유디스 마카베우스' 중 '개인의 합창',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2악장, 요한 스키타루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 영화 '007 시리즈' 중 '제임스 본드' 테마 등을 들려준다. 광주알림포제 요들클럽도 찬조 출연한다. 문의 '더 드림' 062-226-2032. '다소리통' 문의 010-3625-511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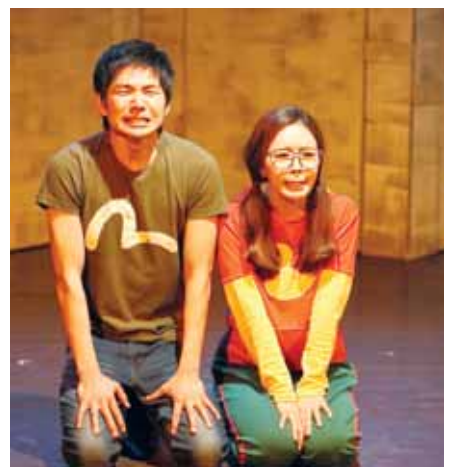


바이올린·첼로를 연주하는 신민섭군 가족.

작사랑에 빠진 그녀

'그녀를 믿지 마세요'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알콩달콩 사랑을 엮어 가는 정춘 남년의 이야기를 그린 코믹 로맨스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가 공연중이다. 2015년 1월 18일까지 평일 7시 30분, 토요일 및 12월 25일, 3시, 7시, 일요일 3시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그녀를 믿지 마세요'는 가상의 연애상담회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랑에 빠졌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 한 마디 못하는 준희. 연극은 준희가 자신의 짝사랑 차명석에게 다가가고자 연애상담소를 찾으면서 시작된다.
007 첩보작전을 연상케 하던 연애상담소의 시도는 번번히 실패로 돌아가고, 준희 또한 사랑 앞에서 자꾸만 처음의 용기를 잃어간다. 사랑을 믿지 않는 연애상담소장 강태범은, 과연 짝사랑에 빠진 김준희와 그녀의 이상형 차명석을 제대로 이어줄 수 있을까?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고 3수험생 40%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문의 유·스퀘어문화관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파죽지는 빛깔 5회 연속 선정

www.geumsoojang.com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가족모임 세미나 상견례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역 062)525-4835 관주송정역 062)941-3278

기차여행

한국관광공사

12월 24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12월 31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무궁화호)	12월 31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광주영동열차)	12월 31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광주영동열차)
남이섬·춘천	정동진 새해일출	KTX로 떠나는 새해일출	KTX로 떠나는 새해일출
시간	시간	시간	시간
11:5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22:00 광주송정역 집결 후 출발	21:0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21:10 광주송정역 집결 후 출발
06:27 가평역 도착 후 출발	06:53 정동진역 도착 후 출발	23:24 서대전역 도착 후 출발	23:32 서대전역 도착 후 출발
07:00 남이섬/김유정 문학촌/춘천 소양강댐/춘천 명동 먹거리 자유관광	07:00 정동진일출/천곡동굴/추암해맞이대위/목호항어시장 자유관광	04:30 낙산사일출/휴휴임/주문진어시장/정동진 관광	04:30 낙산사일출/휴휴임/주문진어시장/정동진 관광
16:18 춘천역 출발	15:30 동해역 출발	18:56 서대전역 출발	19:25 서대전역 출발
22:14 광주역 도착	22:50 광주송정역 도착	22:00 광주역 도착	21:09 광주송정역 도착
성인 85,000원~ 소아 80,000원~	성인/경노/청소년 115,000원~ 소아 83,000원~	성인/청소년 95,000원~ 경노 93,000원~	성인/청소년 95,000원~ 경노 93,000원~